【一】 第四千九百號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七年六月十五日【水曜日】

(昭和三年九月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朝鮮日報

社說

第二次革新에臨하야

一

本月十二日附本報號外로써 이미 滿天下讀者諸位에게 續刊에 對한 吾人의 經營에 當하는 態度와 所信의 一端을 簡截率直하게 披瀝하는 同時에 意外의 紛糾로 말미아마 不得已하야 休刊의 禍厄에 逢着치아니치 못하게된 顚末의 眞相을 闡明하고 그 責任의 所存을 名義人으로서의 苦衷을 懇曲眞摯하게 聲明한바 잇섯스니 이제 다시 重複하야 解코자 안커니와 吾人은 이번의 續刊에 對하야 敢然히 劃時期的 革新의 意義를 規定한다。다시말하면 적어도 九年前의 第一次革新이 本報의 主義主張을 確立한 意味의 革新이라면 今回의 革新은 經營上에 잇서서의 從來의 모든 病弊、缺陷을 一掃하고 鞏固堅實한 新方針을 樹立하는 意味의 革新이라 아니할수업다고 確信한다。

二

回顧하면 우리의 第一次革新以來 九個星霜동안 朝鮮日報는 外드람고 닥처오는 波瀾과 特殊한 環境속에서 重疊하야 吴한 難關가온대에서 無數한 試鍊과 艱難을 겪그면서도 忠實히려에서 씩씩하고 쑤준하게 朝鮮民衆의 表現機關으로서 朝鮮社會의 堂堂한 公器로서 또는 朝鮮文化의 向上發展及世界文化의 紹介普及을 爲한 文化機關으로서 그 潑剌한 生命과 그 不屈의 信念을 把持하고 一貫한 途程을 밟어온것은 오즉 歷代의 經營者及執筆人士들의 敬虔嚴肅한 良心의 發露와 沈勇忍耐하는 戰士的 奮鬪의 赤裸裸한 産物이라 아니할수업는것이다。

三

그런데 이와가티 光輝잇는 歷史를 가진 本報가 經營者及執筆人士들의 物資的、精神的犧牲、奮鬪아래에서 成長發達하는 過程에 잇서서 獅子의몸등이에서 생기는 버레와가티 發生蔓延되는 病弊가잇섯스니 그것은 곳다른것이아니다。經營經理의任에當한 사람들의 放漫한經營、無秩序한經理 그것이다。그經營이 放漫하고 그經理가 無秩序한지라 本報의 恒久的일 潑剌한生命은 不知不識中에 衰弱하야가고 能働的인 活動力은 나날이 虛脫되야 갈뿐이엇다。數年以來 本報의 繼起的인 變動과 波瀾의 近因 遠因이 모다 여긔잇섯다。그리하야 本報의 存在價値를 重大視하는 有志의 本報의 將來에 對한 疑惧와 憂慮는 直接間接으로 深刻痛烈한바잇섯다。這間頻煩한 經營者의 變替 多數한 出資者의 進退도 究竟이것을 表徵하는것이라고 首肯할 理由가 不無한것이다。

四

그런데 이번 版權移動을 契機로하야 新經營者와 舊經營者사이에 千萬意外에 確執이 생기어 本報의 生命이 一時的이나마 中斷되는 不祥事가 이러나고 一般社會로하야금 不快한 疑惑을 가지게하는 同時에 大衆의 企待를 저바리게되어스나 그러나 吾人은 舊經營者들의 過去에 苦心慘憺한 努力과 奮鬪에 차라리 肅然한 敬意를 表할지언정 애초에 爭執、獨擅할 何等의 野心도 成見도 업시 오즉 本報의 經營의 破産的 破綻으로 因하야 瀕死의 狀態에 빠진 本報를 當하야서 이것을 挽救하겟다는 一片誠悃으로서 本報의 經營을 擔任하엿든바 舊經營者는 新經營者의 誠意와 能力에 어림업는 誤解와 聽斷을 가지고 또 社屋什器等의 使用을 無理로 拒否하야 本報가 休刊하기에 이르럿다。그러나 本報는 公器로서의 存在이오 決코 個人의 獨擅할것이 아닌것을 認識하는 吾人은 舊經營者의 一部分의 誤解와 聽斷에 追隨하야 本報의 刊行을 長期的으로 中止하는것이 社會나 讀者에 對한 責任의 所在를 忘却하는것으로 알고 爲先 社屋、什器等의 完成되기 前 얼마동안 不完全한 紙面이나마 發刊하야서 社會와 讀者의 企待를 辜負치아니하라는바이다。이것이 吾人이 匆匆히 不完全한 紙面을 나어노는 微衷이다。

五

要컨대 吾人은 이번의 續刊을 契機로하야 舊經營上의 一切의 放漫無秩序를 克服淸算하고 本報로하야금 確固堅實한 經營方針을 樹立하야 永久히 革新的 朝鮮民衆의 表現機關、公器、文化機關으로서의 使命을 完成하도록 하는것을 最後의 目標로하고 邁進할뿐이다。그럼으로 本報乃至新舊經營者의 一部가 誤解와 聽斷으로써 毁貶하는것은 當初에 問題로 삼지도 안코 紙面의 刷新과 充實、經營의 合理化、組織化에 吾人의 第二次革新의 意義를 確立하는 것이 本報의 主義主張을 經營上에 實現하는 根本的 方針이오 自信하는 바이다。

最終日의貴衆兩院

明日午前의閉院式

議會의收獲은農村救濟

(東京十四日電報聯合) 前政友內閣에 召集된 擧國一致內閣의 第六十二臨時議會는 最後의 幕을 閉하게 되어 午前十一時閉院式을 擧行키로 되엇다 此日

◇貴族院은 …… 開會하야 重要法案 …… 氣可成으로 可決 …… 幕을 閉하기로 되엇다

◇衆議院은 …… 時부터 本會議를 …… 提出法案議員提出 …… 請願案을 各各可決하고 ……

滯納買上案其他

一瀉千里로議了

營業稅減額其他附議

(東京十四日發電報聯合) 最終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一時開會 ……

一、柳河軌道會社補償法案

一、兌換銀行劵條例中改正法案外三件

一、滿洲事件費公債發行法案外六件

一、絲價安定融資擔保生絲買收法案外一件

을 上程하야 各各委員長의 報告가 잇슨後 此를 可決하고 十一時十五分一旦休憩、午後二時再開할豫定이라한다

衆議院本會議

添田敬一郎氏(民) 島田氏의 說明全部에 贊成은 不能하나 時局匡救의 要에 對하야 大體意見을 同히함으로 大局으로 贊成하나다 맛通貨流通圓滿의 意義는 金融疏通으로 解한다、라고 民政黨의 立場을 述하야 贊成하엿스나 島田氏에 比하야 甚히 見劣된다 次로 杉山元治郞氏(大衆)그 主旨와 大綱에 잇서서 贊成하나 될수 잇난대로 速히 議會를 招集할것을 二個月 以內로 明瞭한 意味로 贊成한다 마즈막으로 齋藤首相 現下의 情勢에 對하야는 政府도 全혀 同感임으로 政府는 될수잇난대 외지 決議案의 實現을 期할것이다。

라 述하고 採決에 入하야 滿場一致可決 그리하야 民政黨決議案은 提出者로부터 撤回하고 殘餘의 日程을 延期하고 午後五時二十分散會

一、大正十五年法律第五十二號中改正法律案 (安藤正純氏外八名提案)

右의外議員提出案五件을 各各委員附託後日程第九號로부터 第四十六號外지의 三十八建議案을 一瀉千里로

一、建議案 (松田源治氏外十九名提案)

을一括緊急上程하야 島田俊雄氏(政)原稿를 卓上에펴노코 차재맛참 大臣席을 도라보고 政友會의聲援中에 農村其他負債의整理、通貨流通의 圓滿을 圖謀하야 可及的速히 議會開하야 適當한法案을 提出하고십다는提案理由를 說明하고 最後에通貨流通圓滿의 意味를 政府가通貨의 增發을 意味하지안는것으로 解釋할것갓흐면 政府와我等間에는갓가은 將來에 意見의懸隔이잇스리라고 大見得氣焰을吐하고 降壇

農村救濟策에對하야

春山生

現下農村救濟問題는 急激히 重大化하야 日本政界에서도 各政黨이 一致한 步調로 政府當局의 決心을 求하는 態度에 出하엿다、現政府當局者가 果然妙案神算이 有하야 至極히 疲弊한 農村을 救濟하려는지 天下의 視聽이 此에 集中함은 自然之勢라하겟다、一時農村「모라토리엄」案이란 農村에서의 支拂停止法令案을 云云하엿으나 結局 農村의 救濟도 못되고 其影響되는 方面의 多大함에 鑑하야 現政府當局者는 不贊成하는 態度이오 別로 농히 農村救濟策을 關係要路人士가 熱心討議中에 在한 模樣인듯하다、問題가 重大化한 만큼 政府도 반다시 此際에 緊急히 解決을 策講究할듯하다、朝鮮總督府當局者도 時局에 鑑하야 最近此問題의 善處에 熱中하는 模樣이다、果然朝鮮農村 ……

安達氏復黨問題로

靜觀意志表示

結局何等決定이업서 昨日民政有志會

(東京十四日發電報聯合) 安達氏의 復黨問題에 關한 政黨의 有志代議士는 午後六時브터 丸之內 …… 會合을 開催하고 ……

安達氏復黨이

黨의一大禍根

機會보아爆發될뜻

秋田議長 民政案에對하야는 主旨贊明에

內田外相就任

受諾은閉院式後

總會後正式就任할터

原案全部通過

僅히二件만不通過

民政黨幹部

安達氏復黨中止

事態는一層複雜化

滿洲國承認問題

滿洲承認決議

滿場一致可決

本會議再開即時上程

新駐日米大使

信任狀奉呈

滿洲國承認決議案

緊急上程되다

衆議院本會議再開

王林德의部下

○○線工事妨害

內田外相

就任式은

來二十一日頃

랍프손公使

外務事務次官에

農村救濟問題

殖產局議未決定

審議는總監歸任後

農村救濟策審議

五省次官이會合하야

今日은農民데이

宇垣總督은水原에서

殖產局中心으로

農村救濟對策

民間側에意向도斟酌

如意棒

吳東振一審대로 無期를또求刑

판결언도이십일일에

(평양지국전보) 자칭하는 남의 돌재아들이라하야 체포된 이래 예심에서와 공판정에서 여러가지 파란을이르키든 정의부(正義府)수령오동진(吳東振)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무긔징역을밧고 평양 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긔하야그공판이 금十四일 오전열시부터평양복심법원제二호법정에서 이등(伊藤) 재판장주심, 죽무(竹武)고도(高島)량판사배석 횡전(橫田)검사입회, 관선변호사 조원규(趙元奎)씨 렬석알에 개정되엇다 일심이래로 여러가지 말성을 이르키든 피고일뿐아니라 전후 十여년동안이나 만주에서 활동하든 조선○○운동거두의 공판이라 일은아츰부터 만흔방청객이 모이어 개정하기를 고대하고잇섯다 감옥 자동차로 재판소까지 호송된 오동진은 법정에나타나자 역시 재판장의일체심리를거절하고『이심리에는 복종할수업다』『너이들을 상대할 필요가업다』는등말을하며 ○가를고창하엿다 『형무소정신병자』라는 감정을 밧고잇는피고라 재판소에서도 할수업시 서면심리(書面審理)로 결심하자 입회한 횡전검사는일심과가티 무긔징역을구형하얏다변호사의변론이잇슨후 판결언도는 오는 二十一일 오전아홉시에 하기로하고 재판장의 폐정을선언하는때는 개정한지겨우 四十분만인十시四十분이엇다

京城府廳疑獄 留置만十八名

수뢰사실점々폭로

시내본정서사법계에서 활동중인 경성부의옥사건은 날이갈스록 확대되어 금十四일까지에는 검거총인원이 전경성부영선과장 구전덕삼랑(駒田德三郞)외十七인에 달한다고한다.

검거된피의자들은 오(吳)사법주임이 담당하야 철야취조를 진행중이며 형사대를 八방으로지휘하야 토목건축청부업자등의 신변을 내사중이라한다.

금번의 의옥사건으로말미아마다년간 싸혀잇는 적폐와리롤사건등이 모다 폭로되는동시에 담합(談合)사건까지도 전부발로되리라한다

南大門通에서 偽造貨發見

대규모인듯하다고

十三일밤 남대문통 二정목 잡화상하는 리우상(李愚相)상점에서 그날의매상금을 계산하든중 위조十원권조선은행권을 발견하야 즉시경찰에 계출하엿는데 이와가튼위조지폐는 이것까지 전선에서十수매나 발견되엿는데 극히교묘히인쇄한점으로보드라도 대규모로 위조되여잇는 모양이라한다.

慶南道各郡內에 設定免疫地區

二만三천七백九十여두에

(부산)경남도당국에서는 작년도에실시한기종역(氣腫疫)의 발생상태에대하야 금년도에이르러서는 좌긔와가티 각군을통하야 면역(免疫)을설정하고 二만三천七백九十七두의 축우예방주사를 실시키로 작정하얏다.

	郡數	面數	洞里數
免疫地區內	一九	[illegible]	[illegible]
免疫地區外	一八	[illegible]	[illegible]
補充注射	一八	[illegible]	一八

◇……雨後淸江……◇

陸上競技의寵兒 權君又復被打

부산수상서형사에게 전치대이주일의 중상

(하관十四일발련보련합)올림픽예선에 一착을하고 로스엔젤스의대회로 출전의 영관을어든 조선선수 권태하(權泰夏)군은 동경신궁합숙소(神宮合宿所)에집합하기위하야 十三일밤 九시三十분에 부산에서 관부련락선 창경환(昌慶丸)에탓는데부산수상경찰서(釜山水山警察署)의형사三명에게 조사를당할때에 권군의태도가건방지다하야련락선한쪽 구석으로 끌고가서차고때리고하는등가진폭행을가하야 안면기타에 전치二주일간의중상을 입엇다 권군은매우분개하야 응급수당을하고서 十四일 오전九시반하관발동경으로 갓스나 장차권긔폭행한 형사들을 고소하리라한다

『體育會에서 對策講究』

武者幹事談

권태하군이 올림픽선수로 로스·엔젤스에 출저하려가는 도중 관부련락선에서 부산수상경찰서형사에게폭항을당하야 二주일간치료할중상을입엇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이에대하야 조선체육협회간사 무자(武者)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글세요 나도그러케폭항을 당하얏다는 정보를 접견하얏소이다 사실내용을 아즉자세히 듯지못하얏슴으로 무엇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대소롭잔은 오해관게로 그리된것가튼데 엇잿던 권군을위하야 미안하게 된일이올시다 될수잇는대로문제를 크게잡고 십지안하나 사실진상을 자세히조사해본뒤에 체육회로서 적당한대책을 강구하려합니다」

電氣料金은 一割値下?

체신국의향

체신국에서 목하권형 중인 七월중전긔료를개정할회사는 대전(大田) 웅기(雄基) 고성(固城)의 세전긔회사인데 체신국의의향으로는 어데나 일할이상의 감하를 시킬모양이다

大邱醫學講習所 昇格運動더욱猛烈

학우회비를 운동비로

【대구】대구의학강습소에서는 수년래로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코저 각방면으로 맹렬한 활동을해오든터인데 금번에는 동강습소학우회(學友會) 회비까지 긔부하기로 되엇다한다.

동강습소학생一동으로서 조직된 학우회는 신입생에게 입회금十원과 년액十원의회비를 거두어서 동회안에잇는 운동 변론(辯論)편즙(編輯)등각부의경비를쓰오든터인데 지난九일에 동학우회림시총회를 열고 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될때까지 지금까지 적립된 긔본금一천원과 금년회비二천五백원을합하야 도합三천七백여원을 승격긔본금으로 긔부하기로 결의하엿다한다.

滿洲國 流動警察

안동에도착

【군사령부발표】 만주국유동경찰대(滿洲國流動警察隊) 백사십사명은十三日오후안동(安東)에 도착하자 본부를 그곳에두고 강안一대의 경비취체에 착수하엿는데이는 만주국의 경제적립장으로세액(稅額)(主로關稅)의증수를꾀하며한편으론밀수입을취체하는것이다 동경찰대는 분주소(分駐所)밋감시소(監視所)를상류대사하부근(大砂河附近)에 二개소 하류는 륙도구부근(六道溝附近)에 설치하고 출입하는 선박(船舶)을엄중히취체하기로되엿다한다

東部方面事業 無産兒童敎授

보린회관에서

경성부내에는 학자(學資)가업서서 보통교육조차 밧지못하는자가퍽만흔데 수일전 동부방면사업후원회장(東部方面事業後援會長)김상설(金的卨)씨외 리장혁(李康爀) 태응선(太應善)씨등이 창신동방면(昌信洞方面)빈민부락을시찰한결과 그가운데 자력(資力)이업는 아동을 동부보린관(東部保隣館)에수용하고 보통학교정도의 교육을 밧게하엿다한다.

大刀會匪 營盤에徘徊

수비대가출동

【군사령부발표】 심해선청원(瀋海線淸原)을일단점령하엿다가 일본군에게 구축당한 대도회비(大刀會匪)는十一일 밤에는 영반(營盤)부근으로 이동하고잇는데 심해선(沈海線) 교와 현델을 파괴할념려가잇다는 정보를 접한 봉천수비대는 안산수비대(鞍山守備隊)의 응원을어더 十二일석양에 영산(營山)에 도착하야 즉시로 청원(淸原)방면에 행동을개시하엿는데 동부대의지휘는 도본○대장(島本○隊長)으로되엿다한다.

紅槍隊混入한 反吉林軍擊退

사체를유기하고모다도주

【군사령부발표】十一일새벽에 아성(阿城)에서 길림군(吉林軍)과 일본군(日本軍)에게 격퇴를 당한약二三백명의 병비(兵匪)는 요전신(姚殿臣)의 반길림군주병제삼려(反吉林軍駐兵第三旅)로서 홍창대(紅槍隊)약이삼백명이 혼입(混入)된듯한데 전장에는 이백수십의 사체를 유긔하고 서쪽으로 흣터젓다 또 동일하르빈남방八키로 합대둔(哈大屯)남방지구에 약칠백의 병비가나타나 동지주둔의 진덕재군(珍德才軍)과 교전격퇴하얏다.

동지서방에 약천명의 비적(匪賊)이집단하여잇는데 이는 전일 중촌부대(中村部隊)에게 아성에서 격퇴당한반길림군(反吉林軍)인듯하다.

올림픽大會 觀察代表

매택씨로결정

조선에서 파견될 올림픽시찰원은 경성사범 교유매택경일랑(梅澤慶一郞)씨로내정하고 일간정식으로 결정할터이며 그리고 매택씨는 오는二十三일횡빈 출항의룡전환(龍田丸)으로 선수와가티 출발할예정이라한다.

馬車夫가 運轉手에暴行

조수일명중상

【대구】十一일오후칠시반경 부내동촌선써스 경북제五○三호를 운전수구보정광(久保正光)이 운전하야 동촌에서 대구로 향하야가든중 동촌아양교압가도에서 약二十명의주정군이 일제히 운전수를 포위하고 폭행하려함으로 운전조수 도원철(島原徹)이 구보운전수를 구하기위하야 군중에돌입한바 격로한군중은「이놈도 한놈」이라하고구타하야 도원조수는 그자리에인사불성이되매 중재하려든 승객에게 달려들어 닥치는대로란타하야 승객四五명에게까지 중상케하얏다 이급보를듯고 써스사무소에서는 홍감독과대구서원이급행하야 五명의로동자를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마차군들로서 구써스가 마차에 부터친까닭으로 란폭한행동을 하게된것이라한다.

엄청난『안잠자기』

주인집토디증서를 훔처잡히려다잡혀

서대문경찰서 사법게에서는 수일전부터 묘령의녀자한명을 검거하고 엄중한취조를하는중인데 사건은 복잡한혹막이 한결과 그녀자의 배후에잇는것을 발견하고 시내각처에서 남자십여명을 검거하얏다 사건의내용은 극비밀에 부침으로자세히는 알수는업스나 드른바에 의하면 그묘령의녀자는 충북(忠北) 출생으로 시내 팔판동(八判洞)五十번지에주소를둔 조동옥(趙東玉)(二五)이라는 녀자인데 그는작년겨울에 냉동(冷洞) 사는 부호 김용하(富豪金溶夏)(六二)의집에 안잠재기로잇는 동안에 그집금고에서 현금얼마와 토지권리증서(土地權利證書)를 훔처내어가지고 본래의직업을 사퇴하고 시내를횡행하다가 수일전에 모처에서 전긔 토지권리증서를 담보로 二千수백원을 차용하려는것을 서형사가 탐지하고검거하엿다는데 그는 절세의미인으로 가르보양의 자태를 가지고 취조하는 형사들까지 롱락하려든 괴상한녀자이라 한다.

中央佛敎專門도 文部省에서指定

高等、大豫以上으로

부내 숭일동(崇一洞)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에서는 작년十一월중에 문부성(文部省) 지정을 신청햇든바 얼마전에 문부성으로부터다음과가튼지정의지령이잇섯다한다.

文部省告示第百五十八號

『大正七年文部省令第三號第二條에依하야 左記의學校(中央佛敎專門學校)를 高等學校高等科或은大學豫科와同等以上이라고指定함』

竊盜常習犯

【홍남】경성부본정(京城府本町)二정목에 산다는강경석(姜景錫)은일정한주소가업시홍남일대를배회하면서 소산시게점(小山時計店)에 침입하야시게기타귀중품二백여원어치를도적한것을비롯하야 六十여점에 전후五六차에 달한다는데 그자는전과 五범으로 방금홍남경찰서에서엄중취조중이다

京畿道中等學校 體育指導者協會

각도에도실시키로결정

체육분과회주최의 중등학교체육통제회의는 十三일오후삼시부터 경긔도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긔도내중등학교체육관게자십수명과 도학무과장등이 출석협의한결과 경긔도중등학교체육지도자협회를 설립하기로결정하고 회측안을부의하야 만장일치로가결협정하고 멀지아니하야 발회식을거행하기로되엇는데 이와가튼 협회를각도에설치하야 각도중등학교체육의지도연구긔관이 되게하는동시에 전조선학교체육련맹의 긔초분자가 되도록 할의향이라한다.

高敞서는待雨

아직까지가물 이겨속하여 苗板이全部龜裂

【고창】고창군(高敞郡)은약二주일동안 가물이 계속하야모관이고갈되고이앙시긔가림박하야 일반농가는 무한비를기다린다고한다

天氣豫報

高氣壓은北海道方面으로부터日本海를經하야半島에퍼저서支那大陸은氣壓配置가不安定하고東海南部에는低氣壓이잇다、全鮮一般이曇하고中部에는昨夜小雨가잇섯다、明日도天氣는조치못하다

「豫報」 曇雨模樣

「溫度」 昨日 最高二一、七 同 最低一八、四 今朝 最低一七、九

등명장

▲남의집 안잠재기로잇든묘령녀자가 주인집 토지 문권을 훔쳐내어 저당질해먹으랴다가▲목적을달키전에 경찰에게발각체포되엇다▲그얼골은 절세의미인 그배후엔 十여명의남자들이 잠재▲녀자가 단독으로 계획한일이아니라 할지라도 남의집안잠재기로서는 대담한 행동▲장안 부호들이여이후부터 얼골고은 안잠재기는 아예두지말일▲미묘를 자본삼아 재산을훔치려는것이 무섭고 두렵지안나▲그러타고해서 안잠재기를 함부로 쫏처내지말일▲그리되면 안잠재기실업군이가두로밀려나와중대한사회문제를이르키게될가우려▲그러고보니주인된이는 항상주의를게을리하지안으면그만일듯